

## 당산고사

멸치잡이를 떠나기 전에 당산고사를 올리며 부르는 소리

**자아 당산제를 지극정성으로 잘 모십시더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산님 전에 비나이다.  
 앞터 당산 서낭님요 뒷터 당산 서낭님요.  
 두 골목에 서낭대신 그물 걸기 좋은 시에  
 기도발원을 드리오니 굽어 살펴 주옵소서.  
 다대포의 어부님네 멸치잡이를 가기 위해  
 조그만한 배를 모아 그물 한 채를 배에 싣고  
 부모 형제 처자들을 손을 들어 작별한 후  
 파도 속으로 헤쳐가니 굽어 살펴 주옵소서  
 풀어 주소 풀어 주소 모진 악살을 풀어 주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산님 전에 비나이다.  
 이별 살도 풀어 주고 수재 살도 풀어 주소.  
 풍랑 살도 막아 주고 화재 살도 막아 주소  
 비나이다 비나이다 당신님 전에 비나이다.  
 멸치잡이를 떠나가니 재수 소망을 비나이다.  
 육지에도 풍년 들고 바다에도 풍년 들어  
 양 풍년이 겹쳐 들어 부귀영화를 비나이다.  
 만백성이 풍년 만나 부귀영화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성취를 비나이다.



## 제1과장 그물실는소리

해변의 어막에 놓아둔 그물을 어장 해변으로 옮겨 배에 실으면서 부르는 소리

**일심으로 배에다 그물을 잘 사려 실읍시더. 예!**

에 헤이 사리아	에-헤이 사리아	구슬 같은 고치를 쳤네	에-헤이 사리아	황금빛에 맛들거든	에-헤이 사리아
사려 보세 사려 보세	에-헤이 사리아	그 고치를 따 가지고	에-헤이 사리아	첫째 독은 혈어다가	에-헤이 사리아
그물 한 채를 사려 보세	에-헤이 사리아	돌고 물레 실을 뽑아	에-헤이 사리아	나라에다 상납하고	에-헤이 사리아
이 그물을 널 적에는	에-헤이 사리아	가랑 물레 실을 찾아	에-헤이 사리아	둘째 독은 혈어다가	에-헤이 사리아
어이하여 내었는고	에-헤이 사리아	큰아기 손끝으로	에-헤이 사리아	부모님 전에 봉양하고	에-헤이 사리아
멸치잡이를 가려 하니	에-헤이 사리아	그물 한 채를 내어다가	에-헤이 사리아	셋째 독은 혈어다가	에-헤이 사리아
그물이 없어 못 가겠네	에-헤이 사리아	옷 시울에 우기를 달고	에-헤이 사리아	형제간에 갈라 먹고	에-헤이 사리아
그물 한 채를 내자하니	에-헤이 사리아	아래 시울에 돌을 달아	에-헤이 사리아	넷째 독은 혈어다가	에-헤이 사리아
명주실이 어디 있소	에-헤이 사리아	그물 한 채 꾸며다가	에-헤이 사리아	이웃간에 노놉 먹지	에-헤이 사리아
뒷동산에 뽕을 심어	에-헤이 사리아	고깃배에 사려 실어	에-헤이 사리아	남은 독은 팔아다가	에-헤이 사리아
앞동산에는 잠실을 지어	에-헤이 사리아	멸치잡이를 떠납시더	에-헤이 사리아	논밭 전지를 많이 사서	에-헤이 사리아
뽕잎으로 밥을 주니	에-헤이 사리아	삼치, 콩치, 칼치를 두고	에-헤이 사리아	부귀영화를 누리 보세	에-헤이 사리아
무럭무럭 자라나서	에-헤이 사리아	멸치 잡아 무엇하리	에-헤이 사리아	다 실었소. - 예!	에-헤이 사리아
한잠 두잠 석잠 잔 후	에-헤이 사리아	열두 독 젓을 담아	에-헤이 사리아		



## 제2과장 용왕제

고기배에 그물을 옮겨 싣고, 주·과포를 소반에 진설하고 풍어와 무사를 기원하며 용왕제를 지내는 소리

**용왕제를 지극 정성으로 잘 모십시더.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전에 비나이다.
동해 바다 용왕님요	서해 바다 용왕님요.
남해 바다 용왕님요	북해 바다 용왕님요.
물밑에는 황실용왕	물위에는 청실용왕
청실 황실 용왕제를	지극 정성 드리오니
사해 바다 용왕님요	굽어 살펴 주옵소서.
다대포의 어부님네	멸치잡이를 가기 위해
조그만한 조각배에	그물 한 채를 내어 싣고
오색 가지 서낭기와	용왕 깃발을 달은 후에



돛대 한 쌍 높이 달고	닷줄은 거둬 실은 후에
부모 형제 처자들을	손 흔들어 작별한 후
풍악 울려 배를 띄우고	만경창파로 들어가니
간 데마다 순풍 만나	무사 태평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용왕님 전에 비나이다.
멸치잡이 떠나가니	재수 소망을 비나이다.
육지에는 풍년 들고	바다에는 풍어 들어
부귀영화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성취를 비나이다	

## 제3과장 그물놓는소리(노젓는소리)

그물을 실은 고깃배를 바다로 노 저어 가면서 그물 놓으며 부르는 소리

이여사	이여~사	고요한데	이여~사
달도 밝고	이여~사	절로 난다	이여~사
메리치 생각	이여~사	용왕님네	이여~사
동해 바다	이여~사	용왕님네	이여~사
서해 바다	이여~사	용왕님네	이여~사
남해 바다	이여~사	은덕으로	이여~사
사해 바다	이여~사	농가들랑	이여~사
용왕님의	이여~사	점지나 하소	이여~사
이 그물을	이여~사	시켜나 주소	이여~사
재수 소망	이여~사	도미 등아	이여~사
메리치 만선	이여~사	숭어 등아	이여~사
물색 좋다	이여~사	메리치 등아	이여~사
팔팔 뛰는	이여~사	광어 등아	이여~사
반짝이는	이여~사	다 들어오소	이여~사
넙적하다	이여~사	오는 춘풍	이여~사
우리 후리에	이여~사	막을소냐	이여~사
화조월석	이여~사	불지를 말아라	이여~사
누 힘으로	이여~사	되돌아간다	이여~사
바람아 동풍아	이여~사	진달래는	이여~사
오는 메리치	이여~사		
뒷동산에	이여~사		
만발하고	이여~사		



다대포라	이여~사	앞바다에	이여~사
메리치가	이여~사	풍년일세	이여~사
어기여차	이여~사	저어나 주소	이여~사
화조월석	이여~사	오는 춘풍	이여~사
누 힘으로	이여~사	막을소냐	이여~사
객사 지동	이여~사	쩍 벌어진 테는	이여~사
왕거미줄이	이여~사	제격이요	이여~사
선주 선원들	이여~사	벌어진 테는	이여~사
메리치가	이여~사	제격이다	이여~사
우리 어부들	이여~사	벌어진 테는	이여~사
술과 담배가	이여~사	제격이요	이여~사
어기여차	이여~사	노를 저어라	이여~사
여보시오	이여~사	선원들아	이여~사
힘을 주고	이여~사	저어나 주소	이여~사
메리치가	이여~사	많이 있소	이여~사
빨리 가서	이여~사	맹겨나 주소	이여~사
어기여차	이여~사	저어나 주소.	

